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 (26) 메난드로스왕의 질문과 승려 나가세나의 변증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격과 자아를 오온의 객관(法)으로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무아(無我)의 오래된 설법은 특히나 우리네 현대인들을 당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불교가 전파되던 초기, 이렇다면 그리스나 중국의 합리적 전통은 이같은 해체적 논법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불교가 이들 합리적 사고를 어떻게 설득해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두 세계의 만남은 문명사적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밀린다파라(Milindapanha)>라는 경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역으로는 <나선비구경(先比丘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박트리아 왕국,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방과 예전의 간다라 지방을 통치하던 그리스계의 지배자 메난드로스(Menandros)가 있었습니다. 라틴 이름은 메난데르(Menander)인데, 밀린다(Milinda)는 그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이 지방에서 출토된 동전들을 보면, 법륜이 그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그와 불교와의 인연은 의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밀린다파라>, 혹은 <나선비구경>

그가 불교 승려 나가세나(Nagasena)와 나눈 문답이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남방불교에서는 삼장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 경전의 중요성을 인정한 사람들에 의해 편집과 번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책은 리스 데이비스(Rhys Davis · 1890)와 호너(B. Homer · 1963)에 의해 두 번 번역되었습니다.

전자는 <밀린다 왕의 질문들(The Question of King Milinda)>이라는 이름으로, 후자는 <밀린다의 질문들(Milinda's Questions)>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도 두 번 번역되었고, 불어 번역본이 하나, 일본어 번역본 몇 권, 그리고 우리말 번역본도 두 개는 확인했습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중요 논점들에 대해 메난드로스 왕이 묻고 승려 나가세나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개략 열거하자면, '자아의 본성에 대하여' '올바

른 토론방식' '불안과 고통' '열반의 특징에 대하여' '신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업(業)과 불평등', '윤회와 공덕', '윤회' '극락과 지옥' 그리고 '다섯 가지 덕성(五戒)의 수행, 즉 계율 믿음 정진 정념(正念) 선정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의 '지혜'에 대하여 묻고 대답했습니다.

만남과 대론(對論)의 분위기는 도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 주변을 소묘한 다음, 오온의 분석과 무아의 지혜에 대한 두 사람

은 변증하는 도시였습니다."

경전은 이어, 그 도시 안에 집과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꽃과 향수, 공예 등 사치와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으며, 귀족과 전사들, 그리고 종교적 정신적 수련자들이 한 데 어울려 있는 질서와 변역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왕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왕은 사중 데메트리오스로부터 나가세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탁발 수도

하여, 시종에게 저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시종이 나가세나와 그 추종자들이라고 말하자, 왕은 충격에 휩싸여, 머리털이 곤두섰고, 생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가세나인 데 머물러 있는 질서와 변역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배경에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왕이 등장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왕은 곧 나가세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갑기 달린 사자처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는' 그를 보고, 왕은 자신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

하게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메난드로스는 나가세나에게 다음날 자신의 왕궁에서 더 많은 얘기를 차분히 나누고 싶다고 했고, 나가세나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나가세나와 몇 십 명의 그의 동료들은 왕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나가세나는 영예롭게 지정된 상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왕은 맞난 음식을 대접했고, 모두에게 새 옷을 선물했습니다. 왕은 나가세나 앞에 공손히 앉아 존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섬세한 지성의 대화는 몇 날을 계속했고,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지금 <밀린다파라>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일부입니다.

그들의 긴 대화가 끝났을 때, 천지는 여섯 번을 진동했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바다는 으르렁거렸고, 신들은 대지에 꽃비를 내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논리가 불교의 지혜를 만났!" 번지 않고 흠 없는 다르마 진리, 한때 나가세나를 뚫고 지나갔던 그 진리가, 지금 메난드로스에게로 흘러 넘쳐 갔습니다. "무엇이든 일어난 성질의 것은, 모두 멈추게 되어 있다."

왕은 기쁘게 붓다와 지혜, 그리고 유전연기(流轉緣起)의 멈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문명사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이때 승려 나가세나는 지성의 지배자인 메난드로스에게 '왕자(王者)의 방식'이 아닌 '현자(賢者)의 방식'으로 토론하고 대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현자의 방식이란 다름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억박시키거나 복종시키지 않고,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즘 유행하는 어투로 하자면, '계급장을 떼고' 대론(對論)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리스 논리와 불교의 지혜가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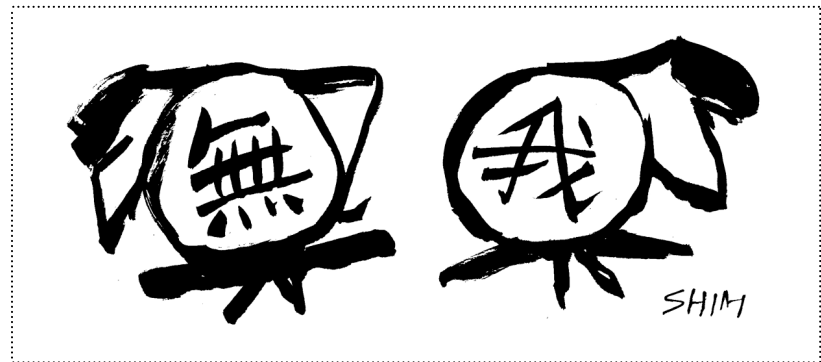
의 대화를 들여보려 합니다.

지상과 영원의 두 지배자가 만난 인연과 무대에 대하여

메난드로스는 기원전 155년에서 130년 무렵, 박트리아를 지배한 권력자입니다. 강력한 분석적 지혜와 높은 교양을 자랑하는 그는 당시의 지도적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뛰어난 현자들, 학식이 많고, 경건한 존경받는 사람도 메난드로스의 소크라테스적 공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왕의 날카롭고 근면적인 질문 앞에 다들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래서 그들이 딛고 선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습니다.

"박트리아에는 천상의 도시 사이갈라가 있었습니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름다운 강과 호수들,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공원과 잘 가꾼 정원들을 웅장한 성채가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는 감시탑이 있



사가 이 도시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80,0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가까운 근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정신적 종교적 문제를 놓고, 그 뛰어난 대화와 변증을 시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50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호화찬란한 수레에 올랐습니다.

곧 수많은 수행자들이 자유하게 모여 있는 천막이 시야에 들어왔고, 왕은 잠시 아찔

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리고 격렬한 논쟁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은 공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패배할 것 같다." 그는 나직하게 신음했습니다.

둘은 인사를 나누고, 조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메난드로스가 예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나가세나는 메난드로스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조용하고 거침없는 어조로, 심오

주장사파라...

④ 팔을 끊은 혜가



조태호



혜가(487-593)스님: 중국 선종의 제2조. 어려서 향산사 보정선사에게 출가 했으나 나이 40에 달마를 찾아가 전법을 받았다. 득도후 만행하며 자유자재의 삶을 보였다.

네터즌 교리문답

'할'과 '방'은 무슨 차이인가요?

선승들이 법문 끝에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것을 할이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선사가 주장자와 죽비로 제자를 내려치는 방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둘 다 제자들의 공부상태를 점검해주거나 깨침을 독려하는 경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IP 불학자)

답1: 할과 방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결된 법문이자 교양수식이며 본지풍양의 노출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점이란 없습니다. 선지식들이 쓰는 무정애한 권도 방편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그래서 제자들의 공부상태를 점검해주거나 깨침을 독려하는 경책'은 결코 아닙니다. 설사 선지식이 간절한 노파심에서 제자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 용할지라도 '경책'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경책은 경책이 아니라 그 이름이 경책일 뿐이겠지요. (토출웅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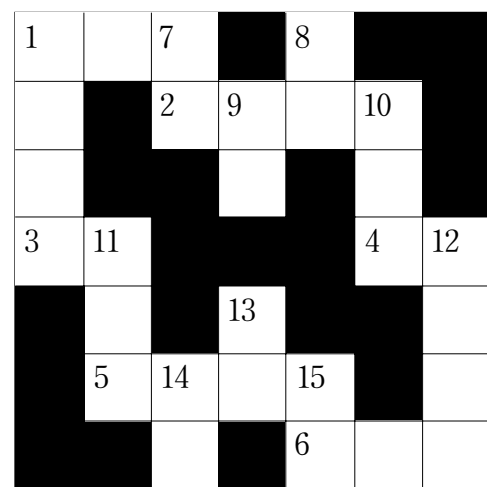
답2: 할은 고성으로 제자의 그릇된 견해와 집착을 깨우쳐 주기 위해 질타입니다. 언어와 사려가 미치지 못하는 경지를 보이는 수단인 셈입니다. 방징이나 조실 스님들이 법문을 마칠 때 갑자기 터져 나오는 할 소리에 어안이 병병해지는 경우를 말하지요.

선문에서 할을 사용하게 된 것은 마조도일 선사가 제자 백에게 쓰면서부터입니다. 백 장 선사는 훗날 자신의 황벽회은 선사에게 "불법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난날 마조 대사의 두 번째 할을 듣고 즉석에서 삼일간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미혹함을 일깨우는 선가의 경책법입니다. 결국 깨달음의 경계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선사들의 할과 방은 철나와 영원을 관통하는 단 일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방법이지요.

때문에 할과 방은 삶의 진실을 단 한 찰나의 움직임으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선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선의 실존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과 방은 분명히 선의 기민한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선사는 "체철으로서 연마 하여 인생의 진실을 밝히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할과 방은 그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지요.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신론이나 잡지가 한 해를 보내면서 그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호 2.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고사성어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면 성취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 3. 전라남도의 남서부에 있는 도서(島嶼)로 된 군으로, 앞바다에서 해저유물선이 발견돼 유명 4. 거울로 삼아 분발을 만든 모범 5.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낌 6. 연초에 근무를 시작하며 갖는 식.

1.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7. 맑은 비(雨) 8. 위치나 자리를 옮김 9.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 10. 산으로 올라가는 목의 첫 머리 11.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애국지사 12. 소식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 13.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양하여 물리침 14. 수질이 좋은 지 나쁜지를 검사하는 일 15. 약한 시력.

세로